

상생·안전·돌봄 기반 '휴먼시티 광주' 구축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점

<3>휴먼 뉴딜

GGM 광주형일자리 자리매김 AI 등 미래 핵심 인력양성 집중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민선 7기 이용섭 광주시장이 공을 들이고 있는 핵심 정책 중 하나는 상생·안전·돌봄을 기반으로 휴먼 시티를 조성하는 '휴먼뉴딜' 사업이다. 휴먼 뉴딜의 선두에는 '청년이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완성차 공장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사회 통합형 노사상

생 일자리아자 국내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라는 점에서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사업 모델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 추진 7년, 협약 체결 2년 3개월, 공장 착공 1년 4개월 만인 지난달 29일 준공식을 가졌다. 국내에서 자동차 생산공장이 새로 생긴 것은 1998년 부산 르노삼성 자동차 공장 이후 23년 만이다. 고임금 등으로 국내 자동차 공장 신설을 꺼려하던 자동차 기업을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적정임금·적정노동'으로 설득한 게 주효했다는 평가다. GGM은 초봉 3500만원에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정규직 일자리 908개가 새로 생기는 것을 포함해 1만1000여개의 간접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까지 380명이 고용됐고, 다음 달 중 150여명이 추가 채용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특히 제조업 매출액의 거의 절반

(2018년 49.2%)을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상승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GGM 공장은 차체 설비와 조립설비를 100% 국산화해 장비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스마트 공장 운영관리와 공정 최적화로 원가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도 받는다. 오는 9월 중 현대자동차에서 개발해 출시하는 국내 최초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위탁 생산할 예정이며, 차량가격은 1400만원대다. 시는 향후 빛그린 산단에 인공지능(AI) 기반 친환경차 클러스터까지 함께 조성되면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우뚝 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GM완성차 공장이 쏘아 올린 상생을 기반으로 한 휴먼뉴딜은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와 노동인권회관, 광주상생일자리 재단 등 다양한 휴먼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는 오는

2023년 빛그린국가산단 내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들어선다. 국비 216억원 등 총 450억원이 투입되며, 지역일자리 창출 거점공간, 노사상생 산업생태계 구축 교육·홍보·참여 공간 및 사회적 대화 중심 역할을 맡게 된다. 같은 기간 도시첨단산업내에서 완공될 노동인권회관은 시비 200여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된다. 노동인권 역사 전시 및 자료보관, 노사상생 교육, 노동자 복지·편익 상승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엔 노사상생문화선도, 노동·상생일자리 정책 연구 등을 맡을 광주상생일자리 재단도 정식으로 설립된다. 광주시는 휴먼 뉴딜의 또 다른 축인 미래형 핵심 인력 양성에도 집중하고 있다. 시는 대학, 지역혁신기관 협력을 통한 상생 플랫폼을 구축해 에너지 신산업 분야와 미래형 운송기기 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포스트코로나 언택트 산

업 핵심 인력 1190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언택트 산업은 교육 콘텐츠 개발 전문인력, AR/VR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플랫폼 전문 인력 등이다. 시는 또 AI와 문화산업 등 광주형 신산업을 선도할 창의적 인재 1080명과 지역 주력 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재 1만 여명도 양성한다. 광주시는 휴먼 뉴딜을 완성하는 또 다른 축인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구축에도 집중하고 있다. 청년출발지원부터 결혼, 임신, 출산, 보육 등 생애주기별 5대 핵심과제를 실행하는 게 핵심이다. 시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실현을 위해 광주출생육아수당, 산후관리공공서비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특화된 정책들을 적극 시행한 결과, 지난 1-2월 출생아수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년 대비 증가(8.1%)하는 성과를 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조선이공대 실습현장 방문 이용섭(가운데) 광주시장이 3일 오후 동구 조선이공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실습현장을 방문해 수업 중인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전남도 성매매 피해아동 전담지원센터 개소

여수YWCA 여성인권센터 수행기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전남도 지역전담지원센터가 3일 개소했다. 전남도는 지난달 공모심사를 통해 사단법인 여수YWCA 여성여성인권지원센터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하도록 조기 발견, 긴급구조, 상담, 보호, 자립·재활, 치료·회복 등 종합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이같은 지원은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된다. 이는 지난해 5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돼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자'로 규정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할 제도적 근

거가 마련된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처벌할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보호처분 등을 선고하기 때문에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이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고 성 착취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경찰이 성 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견하면 도에 알리고, 도는 지역전담지원센터와 연계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게 됐다. 김중봉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나이가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치관 정립이 안 돼 있고 판단 능력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인과 다르게 접근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10월 착공...2023년 5월 완공

부지·건축 면적 등 대폭 확대

전남 동부권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처리할 동부권 통합청사가 오는 10월 착공한다. 2023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며, 당초보다 부지 및 건축 면적을 늘려 규모를 대폭 키웠다. 전남도는 3일 "전남도청이 서부권에 치우쳐 발생하는 동부권 주민의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동부권에 흩어진 도 산하기관을 통합하기 위해 지난 2018년 9월 전남지사 지시로 시작했으며, 지난해 4월 당초 설계안에 비해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240명이 근무하도록 설계했던 청사는 기본 계획 보고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최대 310명이 근무하도록 변경했다. 현재 112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사무실 면적은 1만㎡에서 1만 3000㎡로 늘었다. 주차장도 288대를 계획했으나, 민원 편의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해 총 810대로 늘렸다. 태양광을 반영하고 전기차 충전소도 설치한다. 동부권 주민이 가까운 동부권 통합청사에서 민원을 처리하도록 행정전산망과 연결된 스마트민원실을 마련하고, 대강당, 북카페, 다목적전시실, 열린회의실, 도심정원 등 지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소통·휴식 공간도 대폭 확충한다. 또 '2050 전라남도 탄소중립 종합비전'을 반영해 동부권 통합청사를 탄소제로 건물로 건립한다.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고단열·고기밀 건축 시스템을 적용하고, 에너지 자립을 위해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한다. 추후 옥상 녹화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도 반영할 계획이다.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 지역의 새 랜드마크로 건립하고, 특히 건물 중앙에 친환경 아트리움(천장)을 설치해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청사로 건립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동부권 통합청사가 마련되면 동부권 주민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받고, 시간과 비용도 절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기능 확대에 대비해 충분히 공간을 확보하고, 미래 디자인과 탄소제로 비전을 도입해 동부권 통합청사를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도시텃밭·주말농장 조성 등 추진 도농 교류행사 포함...6일까지 신청

광주시는 "시민 공동체 중심 '2021년 도시농업 활성화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활용해 도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공동체 붕괴, 경제적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5개 사업이며, 도시텃밭 지원 사업과 주말농장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도시농업공동체'만 참여할 수 있다. 나머지 도시농업 특화마을(골목) 조성사업과 도시농부 어울림텃밭 지원사업, 복지형 밥상나눔 텃밭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 마

을공동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는 이번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반드시 '도농 교류행사'와 '도시농업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도시농업이 단순한 텃밭 경작이라는 기존의 틀을 깨고 도시농업 참여자에게 농업의 중요성, 농업인에 대한 배려, 농업을 통한 환경문제 해결, 2045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실천의 기회가 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광주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1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사업 계획 공고'를 참고해 6일 오후 6시까지 생명농업과 도시농업팀을 방문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이메일(도시농업팀 dongyul2010@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대광새마을금고

힘이 되는 든든한 금융파트너

행정안전부
표창장 수상

창립
40th

최고 70%

대출한도
아파트 분양자금

최고 80%

대출한도
부동산 담보대출
(최고 50억원 한도)

최고 2,000만원

(근로자 최고 1,500만원)
햇살론

MG 대광새마을금고

공과금 자동이체(기본 선물 증정) / 카드 체크기 무상 설치
각종 공제(암상해 화재 보험) 취급 / 문화센터 운영(탁구 요가 노래)

| 본점 | 062)222-5851 | 서남지점 | 062)227-1532 | 자산지점 | 062)222-1431